

인천중기청, 현장소통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개최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논의

-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제4차 인천지역「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시간 가져
-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 소공인 매출채권 팩토링 우선 공급,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은 7.24(수)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소진공지역본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및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7.3(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내수회복 지연이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타부처 정책을 포함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금융지원 3중세트”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분할상환·만기도래 보증을 신규 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 기한을 연장, 7%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한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플랫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25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25)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확대(기존 3천만원 이하)하여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기반을 확충하고 안전망이 강화된다. 소공인 판매 대금 신속 정산을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우선 공급,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가맹 제한업종 축소(40→28종),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공제 한도(연 최대 5→6백만원)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경영 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 α로 대폭 확대(기존 30조원),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명확히 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확대(최대 250 → 400만원)할 계획이다.

강해수 청장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소상공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정책 현장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부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책임자	과 장	신훈묵 (032-450-1151)
		담당자	주무관	허 준 (032-450-1141)



□ **개요**

-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플랫폼으로서 정부와 소상공인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

□ **행사계획**

- 일시·장소 : '24. 7. 24.(수), 11:00~13:00 / JST 6층 회의실 (도화동1000)
- 참 석 : 청장님, 소진공지역본부장,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 등 25명 내외
- 내 용 : ① '24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홍보, ②인천지역본부 소상공인 사업 설명, ③소상공인 현장 애로·건의사항 청취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1:00~11:05	5'	■ 참석자 소개	사회자
11:05~11:15	10'	■ 인사말씀	청장님 소진공 지역본부장
11:15~11:35	20'	■ 24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손민국 팀장
11:35~11:40	5'	■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	운영지원팀장
11:40~11:45	5'	■ 소상공인 금융사업 설명	금융지원팀장
11:45~12:50	55'	■ 현장의견청취	참석자 전원
12:50~13:00	10'	■ 마무리말씀	청장님